

보도자료

브라더, 필리핀 태풍피해 복구 성금 10 만 달러 전달

2013 년 11 월 14 일, 서울 - 세계적인 프린터/복합기 전문 기업 브라더 인터내셔널코리아(www.brother-korea.com)의 모회사인 브라더 인더스트리는 태풍 '하이옌'으로 국가재난사태를 맞은 필리핀에 10 만 달러를 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.

필리핀은 초대형 태풍 '하이옌'으로 인해 1774 명이 사망하고, 80 명 이상이 실종되는 등 막심한 피해를 입었으며, 지난 11 일에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.

브라더가 기부한 성금은 필리핀 적십자사에 전달할 예정이며, 이 밖에도 현지 비정부기구(NGO)와의 협조를 통해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피해복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.

브라더인터내셔널코리아의 마에다 히로시(Maeda Hiroshi) 지사장은 "태풍 '하이옌'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"며 "앞으로도 브라더는 필리핀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지원을 계속 펼쳐나갈 것"이라고 말했다.

필리핀은 2000 년 브라더 지사를 설립한 이후 브라더의 판매 및 생산거점이 된 국가로, 지난해에는 브라더 잉크젯 카트리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하기도 했다.

###

브라더 그룹 소개

1908 년 재봉틀 수리업으로 시작한 브라더 그룹은 1932 년 가정용 재봉틀을 개발하여 1934 년에 정식 회사로 설립되었다. 브라더 그룹은 1961 년 휴대용 타자기 개발, 1971 년 고속 도트 프린터 개발 등을 거치면서 프린터 중심의 사무용 기기 전문업체로 변신했다. 이후 팩시밀리, 프린터, 복합기 등을 선보이면서 프린터/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위상을 높여 나갔으며, 뛰어난 내구성과 운영비용 절감에 탁월한 소형 프린터 및 복합기를 잇따라 출시하면서 세계적인 프린터/복합기 전문기업으로서 입지를 구축했다. 브라더는 프린터 및 복합기 관련 핵심기술을 직접 개발해 경쟁력을 높인다는 고유의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. 2011 년 전체 매출은 7 조 4 천억 원이며, 이 중 프린터/복합기 비중은 67.8% 다.

자료에 대한 문의

샤우트 웨저너 에드스트롬 홍승재 부장 & 정지혜 대리

Tel: 6250-9854



Mail: brother_pr@shoutwe.com